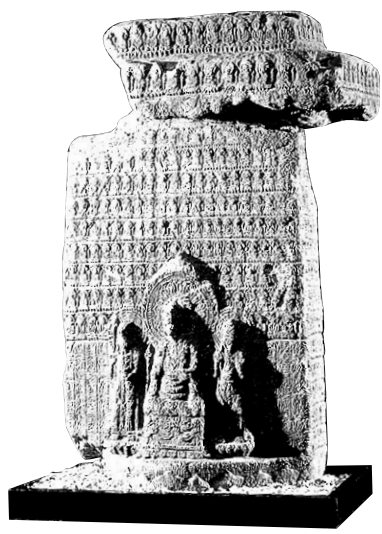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8호 계유명삼존전불비상



흐려진 미소여 미소 일천의 바다여

나래주

조팝꽃, 산수유 꽃이라 해도 좋았고
 더러는 모란이라 함박꽃이라 해도 좋았을 게다
 봄철 하루나 이틀 환한 날빛 속에
 몸부림 하나로 피었다 지는 목숨을 두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꿈꿨다 했는가
 연꽃 불꽃무늬 모자를 쓰시고
 이슬 속에 피어난 연꽃송이 맨발로 밟고 계신 부처님
 한 뼘이 아니라 세분, 다시 보면 일천의 부처님
 한결같이 웃음 머금고 바라보아 주시니
 세상의 온갖 소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이 잠잠해지고
 저승 가는 길 어둔 강물조차 밝았다 할 것인가
 앙그리 망가져 보이지 않는 이목구비 흐려진 미소여
 흐려졌기 더욱 그림고 서러운 미소 일천의 바다여
 여전히 고달픈 오늘의 세상사 어지러운 인간사
 불쌍히 여기소서 여여뻬, 부디 여여뻬 여기소서.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나래주 시인은... 충남 서천 출생,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대숲아래서〉, 〈막동리 소묘〉.

대승불교, 한국불교가 가져야할 정체성

조성택 교수, 15일 교육원 대승불교 세미나서 주장

“오늘의 시대와 한국불교의 현실을 성찰해 조계종 스스로 ‘선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대승의 정체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이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11월 15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주최한 제2회 대승불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불교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선종은 대승 전통은 멀어지고 배타적 정체성이 성립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에 만연한 ‘깨달음 지상주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면 수행은 일상적 실천과 분리된다”며 “이는 스님보다 재가자에게서 더 심

각한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깨닫지 못한 내가 될 수 있겠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초기불교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적 관점을 간과한 채 팔리어 경전에 기초한 초기불교를 ‘부처님의 원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의 가

사회적 실천 추구하는

시민보살을 양성해야

확립화된 법계, 고시

현대에 적절치 않아

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근본불교는 특정 경전으로 환원되거나 고정된 체계로 재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리와 지식 위주의 불교 실행에 대해서는 종교적 감수성이 부재한 교육 체계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실행에서 감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불교의 ‘교리화’에서 비롯된다”며 “여기에는 근대 유럽의 불교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한국 불교학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교수는 ▷문명 비판의 교사 ▷화쟁의 실천 ▷시민 보살의 양성 ▷수행의 일상성과 감성의 복권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과잉 욕망의 시대에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문명 비판의 실천”이라며 “문명 비판의 실천가이자 교사가 될 때 한국불교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세기동안 한국불교는 역사와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명에 대한 자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교적 자각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시민보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前 교육부장 퇴후 스님은 ‘대승불교와 오늘의 승가교육’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행 승가교육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퇴후 스님은 종단 기본 교육 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승가교육은 종도로 하여금 일치된 정체성을 만들도록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승가대학,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기본선원이라는 이질적인 세 기관을 통해 기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교육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가고시와 법계제도에 대해서도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확보될 지는 의문”이라며 “비규계 수지 이후 승려들을 획일적인 승가 고시와 법계 체제 속에 가두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기초 강연을 비롯해 이덕진 창원문성대학 교수의 발제가 이뤄졌으며,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승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종호 스님,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서”

인터뷰 -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 하반기 의장 항적 스님

“종단의 임법기관인 종회가 바로서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종회 의장으로서 종회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2차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항적 스님은 11월 13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의 간 합의를 통한 의사 진행을 하반기 종회의 운영기조로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다년간의 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종회의원 간의 불화가 종단 분규의 씨앗이 되는 모습을 누차 목격했다”며 “투표도 좋지만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 종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적 스님은 안정적 운영이외에도 ▷내년 3월 종회총림법 개정 ▷종현·종법 제 개정 ▷총무원 직제와 예산 편성의 변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를 하반기 종회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192차 정기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총림 지정은 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고, 방장 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립 요구도 불거져 있어서다.

항적 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은 종정 스님 주석처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

이라며 “불합리한 총림법은 내년 3월 종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현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총림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현 종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시대와 종단이 변화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종현 종법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종현 종법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종회서 총림법 개정 추진

총무원 직제·예산 변화 필요

단기출가제도 입법화 고민 중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총무원 직제 개편과 세수 증가도 종회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항적 스님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현재 많은 총무원장이 온라인화 됐지만 총무원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다”라고 비판하며 “중점되는 행정 체계들을 통합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총무원장 스님과 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가 지난 18년간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상 퇴보한 것”이라며 “예산이 있어야 포교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계획하지만, 이제는 중앙총무기관 조직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종회를 비롯한 모든 종도가 종단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당시 前 교육부장 소임을 맡았던 만큼 출가자 증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항적 스님은 단기 출가제도 입법화를 제안했다.

스님은 “월정사의 단기 출가제도는 호응도 높을뿐더러 이를 통해 발심 출가하는 수행자들도 상당 수”라며 “다양한 출가 방법을 모색해야하지만 단기 출가제도는 가장 현실적이다.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직지사 주지 후보

흥선 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 8교구 분사 직지사 차기 주지 후보로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선출됐다. 직지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흥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흥선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교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교구 산림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1974년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흥선 스님은 총무원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직지사는 이날 산중총회에서 문경 김용사 회주 해창 스님을 직지사 회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흥선 스님(사진 맨 오른쪽)이 직지사 주지로 당선됐다.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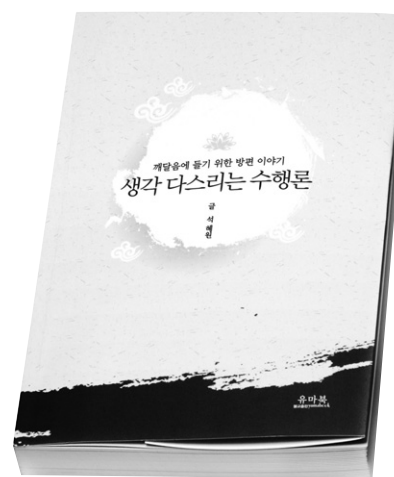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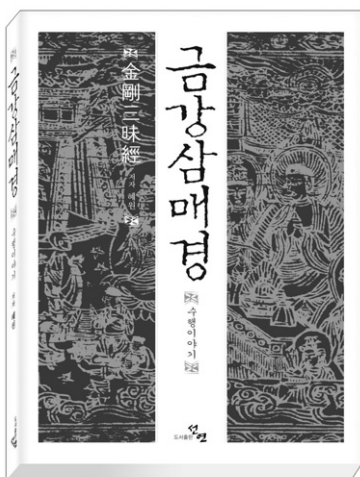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극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 3단계 : 화두참구(견성)
-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모집

- 2기 접수중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무 아 선 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기간 : 1년

■ 강사 : 해원스님